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22>

제21호 안성남사당놀이

인터뷰 꼭두쇠 김기복 옹

"안성농악이 살아야 경기농악이 살지요"

남도농악장단이 경기도를 장악하면서 지역적 특성이 없어졌다며 안성남사당 꼭두쇠 김기복 옹(75·안성시 보개면 남풍리)은 통탄한다.

"경기웃다리 가락은 전라도 소리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흥겹고 변화가 많아 재미가 이만저만 아니야"

남사당의 격렬한 동작 때문에 몇년 전부터 무대에 오르지 못하지만 수십명을 이끌던 당당함과 안성남사당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안성 출신인 김기복 옹은 꼭두쇠 이원보·남운용 문하에서 장구와 풍물 등 남사당의 기본을 배웠으며, 한국전쟁이 나기전까지 이원보 패와 함께 활동했다.

김 옹은 버나놀이와 14m의 열두발 상모돌리기가 주특기이며, 구수한 소리굿이 일품인 이 시대의 명인이다.

김 옹은 1987년 전주대사습놀이에 참가했던 일화를 들려줬다.

"올해 꼭두각시 복원할 터"

"그때 심사를 받기위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안성남사당 가락을 처음 접한 시민과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재미난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와 함께 어우려져 한바탕 놀았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1989년) 이후에는 멀리 제주도나 김천의 농악패가 안성에 배우러 올만큼 전국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김 옹은 이 모든 것이 안성남사당만이 지닌 재미란다.

"다른 가락은 오래 치면 시끄럽기만 하지만 안성남사당은 어떤 악기를 치던 을러 때리지. 꽹가리도 탁 치는 것이 아니라 굴리면서 팔과 어깨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야"

고 남운용의 추천으로 19세때 처음 꼭두쇠가 된 김 옹은 "당시 나이 어린 사람이 꼭두쇠라고 말도 많았다"며 한창 때를 회고했다. "그 때 대한청년단 안성지부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1달 동안 안성을 돌며 공연을 펼쳐던 것은 잊을 수가 없어"

현재 김 옹은 남사당의 여섯마당중 하나인 꼭두각시 복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몇년간 덧뵈기와 살판, 줄타기 등을 어느 정도 복원시켰는데 올해부터는 전통인형극인 꼭두각시를 복원해야 해"

그러나 인형제작비만도 2천만원이 들어 전승 보전에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형복기자 bok@kgib.co.kr

어름-살판-무동-버나-덧뵈기-덜미 '여섯마당'

흥에 겨워…그 열정이 아름답다

경기웃다리 가락 바탕·익살스런 재담
'남사당패' 풍물 등 다채로운 기예 뽐내

조선시대 서민들의 신나는 구경거리이자 삶의 활력소를 제공했던 남사당놀이패. 타고난 기예와 대를 이은 예능이 모여 진정한 예인문화를 꽃피웠던 남사당패들은 전국을 유랑하며 삶에 지친 백성에게 즐거움을 전달하는 전령사였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40~5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남사당은 조선후기 장터와 마을을 다니며 춤과 노래, 곡예를 공연했다. 여기에는 남사당패를 이끄는 우두머리인 꼭두쇠(상쇠)를 비롯 바로 아래인 곰뱅이쇠, 각 예능의 대표격인 뜬쇠 그리고 가열, 삐리, 저승패, 등짐꾼 등으로 체계적인 서열이 존재했다.

안성시 서운면 서운산 청룡사에 자리잡은 안성남사당은 경기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익살맞은 재담을 섞어 풍물 등 여섯가지 다채로운 기예를 펼쳤다.

조선후기에 결성된 안성남사당은 15세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꼭두쇠로 추대된 바우덕이(본명 김덕암·金德岩)에 이어 김복만, 원육덕, 이원보 그리고 지금의 꼭두쇠인 김기복 옹(75)이 맥을 잇고 있다.

특히 바우덕이는 5세에 남사당에 들어간 이후 선소리, 줄타기, 풍물, 무동 등 모든 공연예술을 익혔으며, 뛰어난 기교와 미모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21세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인부들 격려 차원으로 전국의 농악대를 동원했는데 바우덕이 남사당패의 뛰어난 실력을 높이 인정해 정3품의 벼슬에 해당하는 옥관자를 수여했다.

안성남사당은 멋드러진 재담과 함께 버나(채돌리기), 어름(줄타기), 살판(땅재주), 무동, 덧뵈기(탈놀음), 덜미(꼭두각시) 등 여섯가지 기예가 일품이며, 현재 덜미는 복원중에 있다.

안성남사당의 첫 무대는 웃다리 가락의 풍물놀이로 장식한다.

거칠면서 힘찬 웃다리 가락에 맞춰 행사장 주위를 동서남북으로 나눠 밟고 다지는 진풀이굿과 무동(새미), 열두발 상모, 갖가지 묘기를 가미해 시작을 알린다.

'어름'은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걷듯이 어렵다'는 뜻에서 불린 안성남사당의 은어다. 한가닥 줄에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풍경과 줄꾼의 구수한 입담이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줄타는 사람은 '어름산'이라 부른다.

또 '잘하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 판이다'고 불리는 땅재주놀이 '살판'. 현대판 덤블링 같은 묘기로 재주꾼과 어릿광대의 익살이 멍석 위에서 펼쳐진다.

이와함께 '무동'은 안성남사당의 가장 뛰어난 기예다. 장정이 어린아이를 어깨 위에 태우고 춤을 추며, 한 명을 태우는 단무동, 2명을 태우는 맞무동 그리고 다섯명을 태우는 오무동과 칠무동까지 가능하다.

칠무동은 어른과 어린아이 8명으로 구성되는데 맨 위에 올라가는 가장 어린아이를 '새미'라 부른다. 4년전 칠무동에 뛰어났던 홍덕표씨가 유명을 달리한 이후 제대로된 작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안성시립남사당 단원이 그 대를 잇고 있다.

버나는 채바퀴나 대접, 대야 등을 앵두나무 막대기로 돌리는 묘기다. 버나는 곡물을 거르는 채를 돌리기 쉽게 가죽으로 둥글고 넓적하게 개조한 것이며, 버나를 돌리거나 하늘 높이 던져 받아내며, 징, 꽹가리 등 돌릴 수 있는 모든 물건이 재료가 된다.

덧뵈기는 남부·북부·중부지방의 탈놀이를 골고루 혼합해 만든 놀이다. '탈을 쓰고 덧본다'는 뜻이며, 재담, 음악, 춤사위 등이 잘 어우러진 작품이다.

덧뵈기는 줄타기·살판과 함께 지난 3년간 복원한 것이다. 아직 완숙도가 높은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옛 기예를 회복시키고 있다.

마지막 무대인 덜미는 박첨지놀음(꼭두각시)이라고도 부르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민속인형극이다.

안성남사당놀이는 1997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안성남사당을 이끌고 있는 꼭두쇠 김기복 옹은 "경기웃다리 장단인 남사당패의 공연이 열리면 서너시간은 훌쩍 지나간다"며 "올해는 꼭두각시 인형을 제작해 여섯마당 복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남사당의 화려했던 기예가 잊혀진 것은 역사의 흐름과 함께 한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따라 농악패의 활동이 중지당했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해체와 결성을 반복했다.

1982년 꼭두쇠 김기복옹 중심 '보존회' 결성
2002년 '안성시립남사당' 창립…脈 이어

이후 1982년 안성의 풍물인들이 모여 김기복 선생을 중심으로 안성남사당보존회를 결성했으며, 1989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아 당당히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안성시는 2002년 5월 안성시립남사당을 창립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 현재 13명의 단원이 활동중이며, 안성남사당보존회에서 활동했던 지역노인 쒧쒧여명과 초등학생 10여명이 보조출연하고 있다.

여기다 올해 4회를 맞는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및 바우덕이 전국풍물경연대회'는 지역의 특징을 잘 살린 지역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올 3월부터 안성시립남사당은 매주 일요일 안성지역 문화시설을 연계한 투어프로그램에 참여하며, 4월부터는 남사당전수관(678-2064, 675-3925)에서 매주 토요일 상설공연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국제무대에도 안성남사당의 위상을 드높일 계획이다. 안성시 문화공보실 서운석씨는 "5, 6월쯤 유럽의 에딘버러나 디종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3월에는 안성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요중현의 기예단이 내한해 합동공연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남사당의 기예를 복원시 안성남사당의 특징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문화재 관계자는 "서울남사당의 전수를 받아 줄타기나 살판 등의 틀을 갖춘 것은 다행이지만 오랫동안 안성에서 활동했던 꼭두쇠 김기복 옹과 안성남사당보존회 회원들의 철저한 고증을 통해 안성남사당의 색깔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섭·이형복기자 bok@kgib.co.kr